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문지영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Ji-Young Moon(dallsh400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광주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6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고,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간호교육현장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비판적 사고성향 | 셀프리더십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vidence on how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an produc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in Gwangju. The data collected was for 263 such students. It was analyzed with SPSS 23.0 for window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study used Sobel.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ositively influenc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Secondly,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programs should improve subject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t also suggests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hould be provided in nursing education field.

■ keyword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elf-Leadership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I. 서론

대학생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업은 삶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1]. 따라서 대학시절의 진로준비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수반하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취업의 용이성으로 간호학을 선택하고[2],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미리 결정되어 다양한 진로를 찾기보다는 대부분이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3], 이론과 실습이 병행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교과과정 속에서 자신의 진로준비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직업세계로 입문하게 된다[4].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행동 부족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감당할 책임감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쉽게 이직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5]. 전체 보건직종 중에서 간호사 직종의 이직의도는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6],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은 42.7%로 전체 간호사의 평균 이직율 13.9%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업무 부적응[7], 직업적 목표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5], 간호대학생과 같이 자신의 분야가 애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기에[8],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과 다양한 임상 현장의 적응을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구체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겠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준비활동이다[9]. 진로준비행동은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 및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념, 준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상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가[10] 진로준비행동의 전제조건으로 중요성이 인정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관한 것으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11]. 현재까지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이나 교과과정 측면과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으나[12][13],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 경우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14-16]와, 문제해결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7]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리더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창의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본인의 진로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과업 달성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18].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및 통제성을 통해 진로결정에 필요한 인지심리 행동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19], 진로지도 관련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진로준비행동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성이 보고되고 있다[20-22]. 또한 진로결정의 심리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본인에 맞는 진로를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23]. 무엇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2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25][2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13][14][27-29],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0],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20-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25][26]의 관계 및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고,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간호학과는 인증평가 기준에 맞춘 성과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기에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학생들은 진로정보를 주로 대중매체,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20].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직업적 목표설정과 달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진로란 직업 활동을 포함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일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행동적인 측면의 개념인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지적, 태도적 사항이 아니라 행동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개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의 핵심적인 초점은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은 현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이며, 구체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 진로지도 관련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교재, 장비, 기기 등의 구입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9]. 즉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일컫는다[9].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설정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관한 것으로[10], 비판적 사고를 잘하려면 지식이나 기술을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비판적 사고능력인 비판적 사고력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

를 중요하게 여기고 적용하고자 하는 사고성향을 갖추어야 한다[11]. 비판적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뛰어난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사고능력을 사용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비판적 사고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에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11].

간호사가 겪는 다양한 임상실무현장에서 비판적 사고는 합리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 사고로 여겨지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중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1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을 변인으로 하여 관계나 영향을 검증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으나,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4-16], 문제해결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진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겠으며, 이를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부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틀을 확립하여 나가는 것이다[18]. 다시 말하면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달리 자기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 즉 개별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9].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자발적인 능력발휘를 통해 미래의 간호실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질로 여겨지고 있으며[1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면서[31][32], 셀프리더십의 주요 요인인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가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게 하는데 있어 자신의 진로에 관

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능동적으로 탐색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1]. 또한 제남주와 방설영의 연구(2018)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비판적 사고성향임을 보고하면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증진이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13],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4][27-29].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과 함께 두 변인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33],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영향력은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34]. 진로결정과 진로중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른 영역보다 진로 연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3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행동준비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25][2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임이 강조되고 있다[25].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면서[36][37], 진로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진로선택부터 진로준비과정 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36].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25][26]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과 함께 두 변인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연구의 모형과[그림 1]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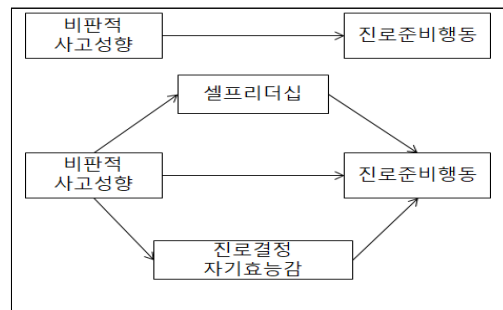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의 간호대학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응답 내용이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린 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인 14개(인구사회학적 특성 10개, 연구변인 4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94명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간호학과 전체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286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설문지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23부를 제외한 263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윤진(2004)[3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개의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진(2004)[3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KMO 값은 .802, Bartlett 검정결과 $p=.000$ 이며, 요인적재량과 공통성 0.4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

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2002)[39]이 수정하여 타당화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신용국, 김명소와 한영석(2009)[40]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93이었고, 신용국, 김명소와 한영석(2009)[40]의 연구에서는 .70~.87,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셀프리더십의 KMO 값은 .858, Bartlett 검정결과 $p=.000$ 이며, 요인적재량과 공통성 0.4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

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Betz, Klein과 Taylor(1996)[41]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10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42]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3~.83이었고, 이기학과 이학주(2000)[42]의 연구

에서는 .68~.89,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KMO 값은 .870, Bartlett 검정결과 $p=.000$ 이며, 요인적재량과 공통성이 0.4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

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과 김계현(1997)[9]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16문항 9점 척도를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와 학내 진로 관련 상담센터들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한 이명숙(2003)[43]의 도구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이명숙(2003)[43]의 연구에서는 .88,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진로준비행동의 KMO 값은 .842, Bartlett 검정결과 $p=.000$ 이며, 요인적재량과 공통성이 0.4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인의 평균은 기술통계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 타당도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위계회귀 분석법을 활용한 Baron과 Kenny(1986)[44]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성 분포와 등분산성을 검정하였으며,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1982)[45]를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44]의 매개효과 검증절차 및 충족 조건은 1단계, 독립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회귀분석 시 유의한 영향, 2단계, 독립변인에 대한 종속변인의 회

표 1.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타당도와 신뢰도

변인 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1	.742	.617			.813	.793			.738	.642			.684	.630		
2	.747	.662			.843	.809			.733	.790			.710	.597		
3	.763	.692			.591	.645			.446	.631			.703	.545		
4	.810	.695			.611	.724			.621	.638			.791	.677		
5	.498	.527			.575	.475			.526	.448			.741	.687		
6	.409	.497			.599	.708			.659	.566			.591	.604		
7	.443	.551			.812	.743			.790	.761			.408	.407		
8	.422	.665			.832	.768			.673	.658			.525	.737		
9	.773	.654			.759	.685			.568	.666			.777	.744		
10	.680	.621			.863	.794			.569	.637			.787	.689		
11	.786	.694			.799	.816			.600	.528			.843	.786		
12	.716	.609			.756	.666			.736	.581			.516	.637		
13	.497	.551			.556	.615			.753	.728			.598	.587		
14	.567	.675			.619	.660			.514	.545			.800	.745		
15	.525	.535			.687	.725			.660	.678			.691	.715		
16	.679	.535			.821	.777			.773	.739			.725	.631		
17	.525	.516			.795	.736			.815	.755			.597	.481		
18	.767	.770	.802	.84	.762	.689	.853	.92	.737	.671	.870	.90	.538	.582	.842	.89
19	.510	.535			.644	.671			.650	.540			-	-		
20	.739	.574			.640	.762			.630	.634			-	-		
21	.659	.622			.704	.654			.521	.585			-	-		
22	.805	.689			.731	.664			.557	.590			-	-		
23	.420	.452			.594	.498			.553	.609			-	-		
24	.689	.668			.777	.697			.676	.670			-	-		
25	.778	.623			.822	.832			.744	.701			-	-		
26	.494	.439			.812	.828			-	-			-	-		
27	.647	.747			.826	.830			-	-			-	-		
28	-	-			.499	.659			-	-			-	-		
29	-	-			.774	.696			-	-			-	-		
30	-	-			.746	.772			-	-			-	-		
31	-	-			.704	.719			-	-			-	-		
32	-	-			.660	.616			-	-			-	-		
33	-	-			.791	.757			-	-			-	-		
34	-	-			.766	.707			-	-			-	-		
35	-	-			.695	.748			-	-			-	-		

A: 요인적재량, B: 공통성, C: KMO, D: 신뢰도

귀분석 시 유의한 영향, 3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에 대한 종속변인의 회귀분석 시 매개변인이 반드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 유의하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나이는 24세 미만이 95.8%, 성별은 여자가 8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년은 1학년 19.8%, 2학년 27.0%, 3학년 33.1%, 4학년 20.2%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중'정도가 75.3%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활동은 '무'가 57.8%였으며, 학과지원 동기는 유리한 취업 27.4%, 적성과 흥미 21.3%, 안정적인 직업 19.4%, 가치 있는 직업 16.0%, 주변사람의 권유 11.4%, 성적에 따라 4.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학기평점은 68.4%가 B~B+였고,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중'정도라는 응답이 91.3%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66.2%가 '중'정도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경험은 '없다'가 95.1%를 차지했다[표 2].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 준비행동 (N=263)

특성	구분	N(%)	진로준비행동	
			M±SD	t/F(p)
나이	24세 미만	252(95.8)	2.57±.40	3.71 (.199)
	24세 이상	11(4.2)	2.73±.57	
성별	남자	29(11.0)	2.46±.53	6.73 (.206)
	여자	234(89.0)	2.59±.39	
학년	1학년	52(19.8)	2.62±.35	1.01 (.390)
	2학년	71(27.0)	2.56±.49	
	3학년	87(33.1)	2.52±.39	
	4학년	53(20.2)	2.64±.36	
대학생활 만족도	상	24(9.1)	2.38±.36	5.47 (.005)
	중	198(75.3)	2.57±.41	
	하	41(15.6)	2.71±.41	
동아리 활동	유	111(42.2)	2.66±.38	1.88 (.008)
	무	152(57.8)	2.52±.42	
학과 지원동기	적성과 흥미	56(21.3)	2.62±.37	3.08 (.010)
	유리한 취업	72(27.4)	2.55±.42	
	가치있는 직업	42(16.0)	2.72±.33	
	안정적인 직업	51(19.4)	2.61±.38	
	성적	12(4.6)	2.31±.48	
주변사람 권유	30(11.4)	2.44±.05		
지난학기 학점평균	상(A~A+)	30(11.4)	2.54±.36	10.70 (.000)
	중(B~B+)	180(68.4)	2.52±.39	
	하(C 이하)	53(20.2)	2.80±.42	
경제상태	상	15(5.7)	2.42±.33	1.25 (.287)
	중	240(91.3)	2.59±.41	
	하	8(3.0)	2.54±.45	
건강상태	상	68(25.9)	2.57±.43	0.02 (.976)
	중	174(66.2)	2.58±.41	
	하	21(8.0)	2.59±.32	
취업경험	유	13(4.9)	2.89±.36	0.13 (.005)
	무	263(95.1)	2.56±.41	

2. 비판적 사고성향, 셸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셸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3].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53점(SD=.33)이었고, 셸프리더십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43점(SD=.43)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53점(SD=.41)이었고,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4점 만점 기준 2.58점(SD=.41)이었다.

표 3. 비판적 사고성향, 셸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 (N=263)

변수	M	SD
비판적 사고성향	3.53	0.33
셸프리더십	3.43	0.4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53	0.41
진로준비행동	2.58	0.41

3. 비판적 사고성향, 셸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비판적 사고성향(r=.366, p<.01), 셸프리더십(r=.545,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06,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진로준비행동은 비판적 사고성향, 셸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셸프리더십(r=.493,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60,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셸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32,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비판적 사고성향, 셸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N=263)

변수	1	2	3	4
비판적 사고성향	1			
셸프리더십	.493**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60**	.532**	1	
진로준비행동	.366**	.545**	.506**	1

**<.01

4.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셸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대학생활만족도(F=5.47, p=.005), 동아리 활동(t=1.88, p=.008), 학과 지원동기(F=3.08, p=.010), 지난학기 학점평균(F=10.70, p=.000) 및 취업경험(t=0.13, p=.005)을[표 2] 더미변수 처리 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Baron과 Kenny(1986)[44]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셸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결과를 제시한 [표 5]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966으로(1.869<d<2.131) 종속변인은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변인에 대한 공차한계는 .362~.962로 0.1이상이었으며, VIF 지수가 1.094~2.764로 10미만 이므로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

표 5.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263)

매개변수	단계	B	β	t	R ²	ΔR^2	F	Sobel test	
								SE	Z
셀프리더십	1. 비판적 사고성향→셀프리더십	.645	.469	9.481***	.364	.343	18.134***	.068	6.181***
	2. 비판적 사고성향→진로준비행동	.415	.335	5.976***	.272	.249	11.858***		
	3.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진로준비행동				.422	.401	20.523***		
	1)비판적 사고성향→진로준비행동	.116	.094	1.610					
	2)셀프리더십→진로준비행동	.464	.486	8.105***			.05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비판적 사고성향→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82	.553	11.593***	.472	.456	28.411***	.059	5.747***
	2. 비판적 사고성향→진로준비행동	.415	.335	5.976***	.272	.249	11.858***		
	3. 비판적 사고성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381	.359	17.282***		
	1)비판적 사고성향→진로준비행동	.104	.084	1.307					
	2)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457	.454	6.673***			.069		

***<.001

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 검정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고, 잔차가 정규성(Kolmogorov-Smirnov's $p=.120$), 10)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1단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매개변인인 셀프리더십($\beta=.469,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6%였다($F=18.134, p<.001$). 2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beta=.33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7%였다($F=11.858, p<.001$). 3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beta=.48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2%였다($F=20.523, p<.001$). 3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지 않았고, 회귀계수가 .335에서 .09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의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완전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Z=6.181, p<.001$) [표 5] [그림 2].

4.2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설 3은 지지되었다. 1단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553,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7%였다($F=28.411, p<.001$). 2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beta=.33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7%였다($F=11.858, p<.001$). 3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beta=.45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8%였다($F=17.282, p<.001$). 3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지 않았고, 회귀계수가 .335에서 .08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의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변

인으로 확인되었다($Z=5.747, p<.001$)[표 5][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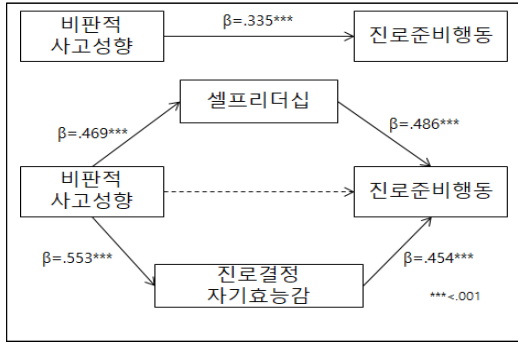


그림 2.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명확한 직업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임상에서의 간호실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대학과정에서부터 진로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선형연구를 고찰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형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4-16]와 체육전공대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7]를 통해 의미를 논의해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12],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진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해결과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 진로준비행동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이나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주로 연구되어 왔고[12][13],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가 없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사고기술, 즉 인지적인 측면인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실천적인 측면인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주로 사고성향보다는 사고기술 즉 사고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고 있다[20].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20].

둘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으면 셀프리더십이 높아져서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을 함께 있어 비판적 사고성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승시켜 능동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비판적 사고성향과 함께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셀프리더십[4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5]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가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20-22]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5][26]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발달되면,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진로목표

설정에 도움과 목표성취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계획이 확고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함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본다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7]. 셀프리더십은 꾸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고[22],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 대리 학습, 사회적 설득 등으로 함양될 수 있기에[47] 이와 관련된 교육이 대학시기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셀프리더십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량강화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간호대학에서는 이를 위한 유용한 토대를 구축하는 필요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역량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기질로 지식습득 중심의 교육보다 사고나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역량들은 단시간에 변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일회성 교육프로그램 보다 학년에 따라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겠으며,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역량강화는 대학생활에서 주도적이고 체계적

인 진로에 대한 고찰과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과 다양한 임상 현장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의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검증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어 표집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에 본 연구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89%를 차지한 것이 한계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변인으로 남자 간호대학생과 여자 간호대학생간의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의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의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좀 더 다양하게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광현, 강성배,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pp.253-293, 2016.
- [2] 박순주, “진로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59-267, 2012.
- [3] 박수경, 조경미, “간호대학생의 임상분야 진로선택의 유형과 관련요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pp.107-122, 2016.
- [4]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383-391, 2004.
- [5] 임보미, 박종민, 김미진, 김수연, 맹정호, 이우리, 강경아, “중합병원근무 신규 간호사의 이직경험에 관한 현

- 상학적 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pp.313-322, 2015.
- [6] 이종선, 고형면, 정현주, 김호진, “전국보건의료노동자 노동실태 분석,” 노동연구, 제33권, pp.169-197, 2016.
- [7]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2018,” 2019,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
- [8] 정윤경, 김동심,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고정신념의 상승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15호, pp.493-511, 2018.
- [9] 김봉환,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제9권, 제1호, pp.311-333, 1997.
- [10] 김명숙, 박정, 김광수, “비판적 사고력 검사 예비 문항 개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 [11] 김태형,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본 비판적 사고성향의 중요성,” 인문과학연구, 제39권, pp.395-415, 2013.
- [12] 윤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59-166, 2008.
- [13] 제남주, 방설영,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2호, pp.825-835, 2018.
- [14] 김지현, 강현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 셀프리더십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18호, pp.435-450, 2017.
- [15] 김미연,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14호, pp.299-316, 2017.
- [16] 정승교,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조사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71-78, 2011.
- [17] 김유신, 한태용, 최성범, “체육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진로행동의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제4호, pp.35-47, 2015.
- [18] C. P. Neck and J. D. Houghton,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1, No.4, pp.271-295, 2006.
- [19]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3, pp.585-600, 1986.
- [20] 황완희, 윤천성,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조절효과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5호, pp.74-98, 2014.
- [21] 배경의, “성격발달수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7호, pp.515-525, 2019.
- [22] 장태정, 문미경,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22권, 제4호, pp.344-352, 2016.
- [23] V. S. Solberg, G. E. Good, A. R. Fischer, S. D. Brown and D. Nor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2, No.4, pp.448-455, 1995.
- [24] 김수영, 배성아,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제12호, pp.429-448, 2014.
- [25] 김경하,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pp.399-408, 2018.
- [26] 안민권,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병역의무계획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지, 제25권, 제1호, pp.93-102, 2019.
- [27] 이선영, 전선영, 임윤영,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55-165, 2016.
- [28] 이도영, 조진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pp.561-569, 2018.
- [29] 강혜승, 김윤영,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pp.617-625, 2017.
- [30] 김건희, 황은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

- 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436-445, 2016.
- [31] 배성아, 성소연,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9호, pp.271-292, 2016.
- [32] 이종찬, 홍아정,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pp.69-92, 2013.
- [33]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 [34] N. E. Betz and D. A. Luzzo,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 of Career Assessment, Vol.4, pp.313-328, 1996.
- [35] A. M. Paulsen and N. E. Betz, “Basic confidence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2, No.4 pp.354-362, 2004.
- [36]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pp.65-83, 2015.
- [37] 광미선,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불확실성, 자기개념명확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통찰력 간의 구조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50권, 제1호, pp.151-177, 2018.
- [38] 윤진,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 개발: 간호학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2004.
- [39] J. D. Houghton and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 of Managerial Psychology, Vol.17, No.8, pp.672-691, 2002.
- [40] 신용국, 김명석, 한영석, “셀프리더십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6권, 제3호, pp.313-340, 2009.
- [41] N. E. Betz, K. L. Klein, and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1996.
- [42] 이기학, 이학주,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1호, pp.127-136, 2000.
- [43] 이명숙,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주, 2003.
- [44]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45]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2.
- [46] 문미경, 김소연,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42권, 제2호, pp.162-169, 2017.
- [47]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22, 1994.

저 자 소개

문 지 영(Ji-Young Moon)

정회원



- 2010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석사)
- 2014년 2월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9년 9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간호관리, 리더십, 간호교육